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9화		
<p style="text-align: center;">9. 혁명은 스러져도</p> <p>인혁은 울고 있었다. 업동은 그 옆에 다가가 앉았다.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남자는 어깨를 들썩이며 굵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지친 육신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업동은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혁의 발목에 묶인 붉은색 대넒이었다. 붉은 비단에 대나무가 수놓아져 있고 검정 실로 ‘인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주명이 정성껏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인혁 뿐 아니라 동학군들 대다수가 가족들이 만들어준 대넒을 묶고 있었다. 혹시라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시신일 경우 대넒으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것이다. 한 땀 한 땀 이름이나 표식을 새기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울었을까. 목숨을 건다는 것이 누구에게든 쉽겠는가. 오직 나라를 지키고 가족과 동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그들이었다.</p> <p>하지만 일본군과 관군의 화력은 막강했다. 수적으로 월등했던 동학군 병사들은 일본군의 대포와 기관총에 우금치 산등성이에서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눈앞에서 죽어가던 전우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봉황산 동학군 진지 내의 병사들은 모두 침묵과 눈물로 비통해하고 있었다. 날이 새면 또 다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거나 기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아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다는 열망에 남은 기를 모아 버티고 있는 동학군이었다.</p> <p>흐느끼는 인혁을 보니 자신의 무릎에서 울던 주명이 생각났다. 부부는 또 이렇게 다투었다. 업동은 이번에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인혁은 업동의 기억에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p> <p>“이런 모습 보이다니 미안하요. 죄 접장.”</p> <p>인혁은 다시 만났을 때부터 업동을 죄 접장이라 부르며 동지로서 예우해 주었고 업동은 왠지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차라리 예전처럼 업동이라 부르며 편히 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p> <p>“미안하요. 다 같은 마음인데요.”</p> <p>“다친 데는 없소?”</p> <p>“네, 저는 괜찮습니다.”</p> <p>잠시 머뭇거리던 인혁이 말했다.</p> <p>“지난번에 내가 한 말 기억하오?”</p> <p>“네?”</p> <p>“내 아내를 부탁한다는 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p> <p>“그런 말씀 마시어요. 꼭 사셔야죠. 아씨, 아니 주명언니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요.”</p> <p>업동의 말에 인혁은 다시 목이 메어왔다.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림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p> <p>인혁이 뭐라 말하려 할 때였다. 강렬한 불꽃과 함께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낮추고 바위 뒤로 피신했다. 총을 장전하는 인혁의 얼굴은 고뇌로 일그러져 있었다. 업동은 지난번에 보았던 주학의 얼굴이 떠올랐다. 적을 상대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다른 표정 때문에 업동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그치려 입술을 깨물었다.</p> <p>***</p> <p>“오라버니!”</p>			

주명이 버선발로 뛰어왔다. 주학은 동생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주명은 반가움과 걱정으로 주학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툇마루에 앉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라고요. 고부에는 들렸다 오신 거예요?”

마음이 급해 이것저것 말을 늘어놓는 주명을 보며 주학은 가슴이 저러왔다. 지난 번 동학군과의 싸움이 끝난 후 정신을 차린 주학은 웬지 업동의 모습이 스쳐간 듯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학은 참을 수 없이 업동이 그리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봉서마을로 향했다.

“오라버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주명의 얼굴도 잡은 손도 거칠고 행색이 이상했다. 그제야 주학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하는 하인들도 없고 덩그러니 텅 비어 보이는 집이었다. 주명은 평민들이 입는 옷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업동이 보이지 않았다.

“업동인? 업동인 없는 게냐? 심부름이라도 간 게야?”

업동의 이름부터 나왔다. 야원 얼굴에 멍한 눈동자로 나타나 업동으로부터 찾는 오라비의 마음이 읽혀졌다. 그렇게나 업동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항상 냉정하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오라비라 업동을 향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예쁘고 발랄한 업동일 욕심내는 것이지 사랑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주명은 마음이 쓰라렸다.

“업동인 여기 없어요.”

“없어?”

“예,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다니?”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학은 머리를 한 대 세계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럼 너희... 혹시?”

“네. 저와 서방님은 동학에 입도했습니다. 업동이기도요. 오라버니 안 계실 때 저희는 전봉준 장두님과 같이 전주성까지 갔었어요.”

주명의 입에서 계속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주학은 믿을 수가 없었다.

“서방님은 동학군으로 떠나 계시고 이 집 사람들도 모두 내보내서 저 혼자 있어요. 그래도 저 이제 밥도 짓고 빨래도 할 수 있답니다.”

주명은 주학의 기색을 살피며 짐짓 아무 일도 아닌 듯 밝게 웃었다. 불안에 떠는 매일이었지만 오랜 만에 만난 오라비에게 걱정스런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못내 미안해서였다. 그러나 주학에게는 아무 일이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얘기였다.

“그럼 업동이기도 지금 동학군에 있다는 게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업동인 웬만한 남자들 보다 강하답니다.”

주학은 벌떡 일어났다. 주명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어깨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째, 어째서. 너희들은...”

“오라버니?”

일본군과 관군이 가진 무기의 힘을 그는 알고 있었다. 동학군이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그들은 총알받이가 될 운명이었다. 그 포탄과 총알 속에 업동이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쳐왔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주학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

업동은 감은 눈을 떴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무언가에 눌린 듯 일으켜지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에 동지들의 시신이 보였다.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듯 온통 피투성이였다. 업동은 동학군 한 사람이 그녀의 위에 엎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포격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해가 뉘엿이 기울고 있기에 시간대를 짐작

할 수 있었다. 교전이 잠시 소강상태인 듯 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공격이 수십 차례라 지칠 만도 했다. 업동은 시체 밑에서 기어 나오며 떨어져 있는 총을 주워들었다. 싸워야 한다. 몇 번이고 다시 싸울 것이다. 그런데 동학군 동지들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옮겨 간 것 같았다. 업동은 지치고 다친 몸으로 간신히 일어났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인혁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럴 리가, 아니 그래선 안 된다. 업동의 머릿속에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떠올랐다.

“돌격하라! 계속 돌격하라!”

쉴 새 없이 외치는 소리 속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있는 능선 위로 올라가고 있던 업동은 작은 바위에 숨어 총을 조준했다. 하지만 한 발 쏘고 나면 장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화승총이었기에 그녀는 화약을 집어넣으며 목표로 할 적군을 찾고 있었다. 그 때, 옆쪽에서 동학군 한 사람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고통에 신음하면서 그는 기어서 숨을 곳을 찾았다. 업동이 어찌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인혁이 나타나 그에게로 달려갔다. 부상자를 부축해 일으키던 인혁에게 총알이 날아갔다. 인혁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안돼!”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업동이 그를 향해 달려가려는데 총에 맞은 또 다른 동학군이 그녀를 향해 쓰러졌다. 업동은 남자의 몸에 깔리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업동은 인혁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상처를 막으며 코끝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자 희미하게나마 숨을 쉰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려 애쓰며 업동은 소리쳤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인혁이 눈썹이 꿈틀거렸다. 업동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전투가 시작될지 모르기에 그를 옮겨야 했다. 업동은 그의 얼굴을 때렸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인혁이 가늘게 눈을 떴다.

“서방님, 저 보이세요?”

“여, 여보..”

인혁의 힘없는 부름에 업동은 그가 자신을 주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에게는 업동의 ‘서방님’ 소리가 주명의 것으로 들리는 것이다.

“저 업동이에요.”

“업동이...”

상대가 업동이임을 알자 인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처의 고통보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네. 서방님 조금만 힘내세요.”

“잊지 말고... 부탁하오... 아내를.... 아이를...”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이 지키셔야죠.”

“미안하다고... 혼자 남겨둬서... 아이를... 좋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힘겹게 들리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멈추고 말았다.

“안돼요. 안돼요. 가지 마세요.”

인혁을 깨우려는 듯, 그의 영혼을 붙잡으려는 듯 업동은 인혁의 몸을 세차게 흔들며 오열했다. 그에 따라 인혁의 발목에 매듭이 풀린 채 매달린 붉은 대님도 흔들렸다.

**

“악!”

주명이 배를 끌어안고 주저앉으려 했다. 뱃속이 뭔가에 찢린 듯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주학이 넘어지려는 동생을 부축했다.

“왜 그러느냐?”

“배, 배가...”

주학은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역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주명의 고집은 여간이 아니었다. 여리고 순종적이던 동생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치마저고리에 가려진데다 배가 나오지 않아 주학은 주명이 아이를 가진 것을 몰랐다. 길을 떠난 후에야 알게 된 동생의 임신이 주학에게는 기쁜 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인혁이 더욱 패썹해졌다.

인혁과 업동의 동학군 참전 얘기에 주학이 보인 반응은 주명을 두렵게 만들었다. 1차 봉기 때의 상황만 기억한 주명은 일본군의 개입이 관군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라비의 모습은 그녀의 생각을 변화게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집에서 편안히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봄에 있었던 전투들을 목격했고 그들의 밥과 빨래를 하며 함께 싸운 후방의 전사였다.

‘아가.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외롭게 싸우도록 할 순 없구나.’

주명은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주학과 함께 밤길을 달렸다. 그런데 주학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민보군 숙영지였다.

“주명아, 지금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이해해다오.”

주학은 민보군 지도부에게 돈을 찢어주고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한 관군의 이동경로를 알아냈다. 전투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내로 반드시 인혁과 업동을 찾아서 동학군에서 끌고 나올 것이라고 주학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명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것이다. 주학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이를 가진 여인의 간호는 생각도 못해본 일이기 때문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틀던 주명이 잠시 뒤에 고요해졌다.

“괜찮으냐?”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무래도 너는 남는 게 좋겠다.”

“오라버니. 길에서 쓰러지더라도 저는 갈 겁니다. 오라버니가 버리고 가시면 혼자라도 서방님을 찾아갈 거예요.”

“주명아.”

“제 걱정은 마세요. 저한테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어리기만 했던 동생이 여인이 되더니 이제 엄마가 되어가며 태산만큼 커지고 있었다. 주학은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이 감겨 잠이 든 사이에 주명이 사라지고 없었다.